

장백산천지

제 371 호

2020년 2월 16일

일요일

파룬궁수련은 능히 인체의 면역(免疫)력을 강화할 수 있다

[밍후이왕] < 파룬궁수련은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문장은 2003년 사스전염병 폭발시기에 발표됐다. 현재 무한에서 폭발한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무한 폐렴은 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병독에 속하며 이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병독은 지금까지 예방약이 없는데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병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래는 문장 개요이다.

파룬궁은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야말로 병독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이다.

현대의학은 줄곧 효과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 병독을 대처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병독을 대처하는 법은 세균처럼 항생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병독의 종류가 다양한데다 유전자는 또 쉽게 재조합 혹은 돌연변이하기에 예방과 치료에 아주 큰 곤란을 가져다준다.

이처럼 피동적으로 격리하는 것 보다 병독 대응에는 "예방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 만약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모른다면 효과적인 격리조치를 할수없기 때문이다.

중국과 기타 국가의 수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공은 능히 인체의 면역력을 승화할 수 있다. 그 중 파룬궁수련은 면역력 승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예를들면 텍사스주 휴스턴 베일러의학원에서 파룬궁수련생의 면역 세포의 유전적인 반응 상황을 연구해냈다.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과 비교해 봤을때 파룬궁수련생의 호중성백혈구의 기능과 유전적인 표현이 아주 뚜렷한 변화를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런 변화는 아래와 같이 표현됐다.

수행 기능이 강화되다

예를들면 포식작용을 통해 이물이나 세균을 제거하는 작용이 강화되고, 디펜신 혹은 인터페론(干扰素) 등 면역력과 관련되는 유전적인 반응이 증가됐다.



▲ 뉴욕 일부분 파룬궁수련생들이 중앙공원에서 집체로 파룬궁 5조 공법을 연마하고 있다.

디펜신은 에이즈 백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항균 펩타이드 분자로 알려져 있다. 인터페론도 주변세포들이 항바이러스 방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 당단백질이다.

2. 면역세포의 신진대사가 늦어지면서 수명이 연장 된다.

파룬궁수련은 인체 면역계통의 쌍방조절에 대해 병 원인을 소멸 할 뿐만아니라 또 기체를 보호한다

현대 의학에서 이미 많은 질병은 침입되는 물질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체의 면역기구가 염증병소에대한 면역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기체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영국의학 주간《류엽도(柳叶刀)》잡지에서는 홍콩의학계 인사가 75명 성인 사스환자 상대로 그의 따른치료결과를

보도했다. 그들은 많은 사스환자의 폐부 손상이 악화 되었지만 그것은 병독이 번식이 원인이 아니라 인체 면역계통이 열심히 병독과 싸우는 과정에서 "숙주 반응이 과도하게 활발한 결과"라는것을 발견했다. "질병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악화되더라도 견잡을 수 없이 번식하는 병독보다 면역적 반응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면역반응은 한자루 쌍칼날과도 같이 너무 약하거나 너무 늦게 활성화하면 면역력이 부족해진다. 너무 강력하거나 오래걸리면 염증반응을 일으켜 자신을 엄중하게 손상시킨다. 즉 기체에 손상을 준다. 파룬궁수련이 사람인체의 (4면에 계속)

무한 폐렴 환자가 구조된 경과

대법을 진심으로 믿고 성심으로 '파룬따파하오'를 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빙후이왕
이틀 전 한
수련생을 만
났는데 친구
발생한 일을
들을 수 있었
다. 수련생의
치척 Z 선생
은 설전에

무한에 갔었고 도착해서야 그곳 전염병 상황이 매우 심각 것을 발견했다. 며칠 후 도시가 봉쇄당해 빠져나가려면 이미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Z는 '이곳에 봉쇄당해도 죽는 길이요 빠져나가려 해도 죽을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 봉쇄당해 죽는 것보다 빠져나가면서 이 훨씬 낫다'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안간 노력을 다 해서 주변의 다른 도시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 그곳마저 봉쇄한다고 했다! 그는 목숨을 내걸고 다른 성에 도망쳤고 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겨우 자기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왔어도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자가 격리했다. 그는 그래도 빠져 나왔으니 속으로 '14일 지나 괜찮으면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14일 되던 그날 갑자기 고열에 기침이 나면서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등 '무한 폐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얼마 안 돼 쓰러질 것 같았다. 그는

즉시 '120'에 전화를 걸어 병원의 응급진료를 받겠다 했고, 병원측에서도 처음엔 진료를 나갈 것이라 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그에게 연락해 응급차를 파견할 수 없으며 전염병 병원에 연계하라고 했다. 그래서 전염병 병원에 전화를 걸었으나 그쪽에서도 응급차를 파견할 수 없다면서 스스로 시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병원에 찾아가 진료받으라고 했다. 전화에서 상대방의 태도는 모두 괜찮았으나 진료를 나갈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어떤 병원에서도 응급차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병세가 매우 심해 전혀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철저한 절망을 느꼈다. 천신만고 끝에 전염병 지역에서 벗어나 목숨을 건졌다면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는 전화로 7살 된 아들에게 말했다. "아빠는 병으로 곧 죽을 것 같아....."

Z 선생의 아들과 아내, 장모는 모두 파룬궁 수련생이다. 그들은 Z의 가까이에 갈 수 없어 조급함과 걱정의 마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계속 그에게 격려의 말을 보냈다. 아들은 끊임없이 아빠에게 전화로 알려드렸다. "아빠, 꼭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진심으로 넘하세요! 꼭 넘하세요!"

그는 마침내 대법이 생각나 아들의 말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는 생각했다. '현재 대법(大法)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에 흥전돼 무수한 사례는 이미 각종 돌발적인 사건이나 재난에 직면했을 때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 이 아

흔 금자 진어(眞言)이 구원의 작용을 일으키기 것이 증명 되었는데 '아흔 금자 진어'은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묘약이다. 그는 희망을 보았다.

이튿날 가족은 그의 전화를 받았다. 고열 증상이 사라졌고 전신에 땀이 가득 났으며 지금은 매우 힘들어 일어날 수 없으나 별다른 증상이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인젠 철저히 알게되어 파룬따파가 또한번 그의 명을 구해 주었다. 가족은 모두 격동되는 심정이었고 아이의 외할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수련생이 계속해 말했다. Z 선생은 몇 년 전 그의 권유로 이미 '삼퇴'를 했으며 특히 Z가 '전신성 흥반성낭창'에 걸려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할 때 시험 삼아 대법 책 '전법륜(轉法輪)'을 읽었는데 결과 병이 나았다. 하지만 그는 중공사당에게 매우 깊이 세뇌당해 대법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으며 심지어 대법에 나쁜 말을 했고, 자신이 병은 약을 먹어 나았으며 전에 했던 '삼퇴'도 무효라고 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머리 석자 위에 신령(神靈)이 있으며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던지 하늘은 모두 기재하고 있다. 현재 생명을 빼앗아가는 큰 재난에 직면했을 때 매개인의 대법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Z 씨의 선후 경력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다. 오직 진심으로 사당(邪黨) 조직에서 탈출하고 마음으로 대법이 좋다는 것을 믿어야 만이 진정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

'유백은 비문'이 알려주는

전염병을 피하는 진언

[명후이왕] 역사상 큰 일을 앞두고 수많은 선지자와 선각자와 명인은 천체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교묘하고 독특한 언어로 이를 기록했는데. 예를 들어 제갈량(諸葛亮)이 마전과(馬前課)를 쓰고 소옹(邵雍)이 매화시(梅花詩)를 쓰고 유백운(劉伯溫)이 소병가(燒餅歌)를 쓰는 등등이었다.

사람들은 이미 발생한 일을 이런 유명한 예언과 대조할 때 모두 아주 높은 정도로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이런 예언은 갈수록 세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유백운의 이름은 유기(劉基)이며. 명나라의 개국 재상이었다. 그는 도량이 크고 정직했으며. 청렴결백하고 공사에 힘썼다. 그는 재상이었을 뿐 아니라 득도한 명인이었다. 그는 널리 알려지 소병가를 포함해 후세를 위한 수많은 예언을 남겼다.

'사시(陝西) 태백산 유백운 비문'은 지지 중에 발견돼 몇 년 전에야 미가에 알려졌다. 이것은 돌비석에 기록된 내용이 현재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유백운 비문은 앞으로 발생할 큰 전염병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세인에게 어떻게 해결할지 알려주었다.

돼지와 쥐의 해에 전염병이 발생한다

유백운 비문은 돼지와 쥐의 해에 큰 재난이 발생하며. 나아가 겨울에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지

적했다.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역병이 언제 닥칠지를 묻는다면. 오직 겨울부터 열 달 동안을 보라.[若問癘疫何時現. 但看九冬十月間]" "아홉 번째 구식은 시체를 검사할 사람이 없어요. 열 번째 구식은 돼지와 쥐의 해를 넘기기 어려웁니다.[九愁屍體無人檢. 十愁難過豬鼠年]"

하늘의 뜻을 공경하고 따르던 고대인들이 '하늘의 도를 헤아려서 사람의 일을 밝히다'라고 한 것은 우주와 자연이 유동하고 변화하는 법칙을 탐색하고 추론함으로써 사람에게 인류사회의 발전과 개인이 생존하고 변화하는 법칙을 깨닫게 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람의 도리를 깨닫고.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함하여' 자신의 행위가 절대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다는 것이었다. 예언의 목적은 일부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세인을 일깨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다.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보이니.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도다. 세상에 크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재난을 만나더라도 계산에 넣지 않도다."[行善之人得一見. 作惡之人不得觀. 世上有人行大善, 遭了此劫不上算]

이런 재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큰 선인(善



人)이 있으니. 그들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선을 행하라고 알려준다. 지식으로 성의를 보이기만 하면 하늘은 재난을 없애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염병 속에서 화를 피하는 법을 알려주었다면 절대 함부로 거절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관건적인 역사 시기에 어떤 사람이 무시로 관념으로 인해 시과 부처를 믿지 않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다.

전염병 재난의 범위에 대해 비문은 이렇게 썼다. "세 번째 구식은 호광(湖廣)에서 큰 난을 만나는 것이요. 네 번째 구식은 각 성에서 봉화가 오르는 것이다."[三愁湖廣遭大難. 四愁各省起狼煙] 전염병이 먼저 '호광(湖廣: 호북성과 호남성)'에서 발생해 이후 전국 각 성으로 퍼지며. 전염병 재난 중에 '천하에 난이 있따르고'. 전염병 대응을 위해 곳곳의 분위기가 '봉화가 도처 기장되어 피어오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화를 피하는 진언이 있

고 크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전염병 재난 속에서 화를 피하는 진언은 무엇일까?

'유백운 비문'은 또다시 세인을 각성시켰다. 이른바 "하늘은 편애하지 않고. 덕이 있는 자를 도울 뿐이다"라는 말을 천지를 경외하며 선량하고 덕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하게 화를 피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선(善)'은 비문 속에 여러 차례 나타난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보인다". "세상에는 크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오직 선해야만 보전할 수 있다."

비문의 마지막에 유백운은 수수께끼처럼 파자(破字)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세 글자를 알려 주었다. "일곱 사람이 한 길을 가는데(七人一路走). 유혹하여 입으로 들어가고(引誘進了口). 점 세 개에 갈고리 하나를 보태니(三點加一勾). 여덟왕에 입이 스무 개라(八王二十口). 사람마다 기뻐서 웃고(人人喜笑). 사람마다 평안하다(個個平安)." (4 면에 계속)

(3 명의 계속) '일곱사람이 한 길을 가는데(七人一路走), 유혹하여 입으로 들어가고(引誘進了口)는 '진(眞)' 자다. 진 자의 윗부분은 일곱 칠(七), 아래는 사람 인(人)과 한 일(一) 자가 합쳐졌다. 당길 인(力) 자의 활 궁(弓) 자가 입 구(口) 자 속에 들어가면 바로 눈 목(目) 자가 되는데, 당길 인(力) 자의 뿔을 꺾(丨)이 위쪽으로 이동해 눈 목(目) 자 옆에 놓이면 참 진(眞) 자의 중간 부분이 된다. '적 세 개에 갈고리 하나 추가(三點加一勾)'는 '인(忍)' 자다. 여기에는 '세 개의 적에 갈고리 하나를 보태'는데, 적 하나를 갈고리 구(勾) 자 윗부분의 칼 도(刀) 자 중간에 놓으면 칼날 인(刃) 자가 되고, 적 두 개를 갈고리 구(勾) 자 아래부분의 사사사(△) 자에 놓으면 마음 심(心) 자가 되어 아래 위로 합하면 인(忍) 자가 된다. '여덟 왕에 입 스무 개(八王二十口)'는 '선(善)' 자

다. 선 자는 위에서 아래로 여덟 팔(八) 자가 거꾸로 놓여 있고, 임금 왕(王), 스물 입(廿), 입 구(口) 자가 조합된 것이다. 이 세 글자는 바로 진(眞), 선(善), 인(忍)이며, 중국 문자가 담고 있는 무한한 지혜로 하늘의 기밀을 탐구할 실마리를 후세에 남기 것이다. 만약 세 인 중에 인연 있는 사람이 비무에 적히 지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비무의 마지막에 쓰여 있듯이 "사람마다 기뻐서 웃고 사람마다 평안할 것이다."

전역병이 사납지만, 영약이 있다

2019 년 말부터 흑사병이 발생했고 2020 년 1 월 초가 되자 무한 폐력이 폭발했다. 1 월 23 일 무한 시 북새를 시작으로 절강, 광둥, 호남 등에서 '일급 경보'를 발령하는 등 전역병이 만연한 가운데 지금까지도 효과적인 예방법을 찾지 못했다.

사나우 전역병에 직면해 스스로를 구할 좋은

방법이 있으니 파룬궁수련생이 당시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다), 찌싸러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다)'를 정성껏 외우라고 알려 줄 때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 아홉 자 지언에 담기 것은 모두 우주의 수정하 에너지로 사람의 신식을 강화시켜 바른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당신이 진식을 담아 한 번 외우는 사이에 일체가 모두 변한다!

파룬따파는 불가 수련자의 최고 공법이며, 수련자는 '진선인(眞·善·忍)'의 원칙을 자신에게 요구한다. 병을 고치고 목을 건강하게 하며, 도덕 수준을 높이므로 전 세계 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으나, 유독 중국에서만 잔인한 박해를 받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모욕하기 위해 '천아문 부시 거짓사건'을 만들었는데, 이른바 부시자살에 가담한 사람들은 파룬궁수련생이 전혀 아니었

고, 모두 중국공산당이 심혈을 기울여 계획하고 연출한 것이었다. '중남해 포위공격'은 더욱 적반하장이니 중국공산당의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 파룬따파는 정법이며, 거짓말을 꿰뚫어 본다. 대범은 진상을 깨달은 고귀한 중국인을 모두 보호할 것이다!

중국에는 가절히 바라며 이루어진다는 오래된 말이 있다. 전역병 속에서 '파룬따파 하오 찌싸러 하오(法輪大法好, 眞善忍好)'를 명심하고 당시의 처지를 포함해 눈에 띄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칠층 석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재난 속에서 복음을 사방에 전파해 인연 있는 사람이 모두 구워받을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



(1 면의 계속) 면역계통에 대한 또 다른 한가지 좋은점을 말하자면 더욱 신기하게 좋은점은 면역력으로 하여금 높아야 할때는 높아지고, 낮아야 할때는 낮아진다, 이렇기 때문에 질병소를 소멸하고, 또 기체는 보호할수 있어 일종의 "쌍방조절"이다.

수련하지 않는 사람의 면역력과 비교해 봤을때 병원이 침입할때면 파룬궁수련생의 면역력은 더욱 빠르게 움직여서, 더욱 강력하게 활성화돼 병원소를 제거하는 등 더욱 강력한 면역력을 표현한다. 병원소가 제거된 후 수련자 몸속의 면역세포는 생체가 다

치지 않도록 빠른 속도로 배출된다. 이어 그들이 한 유전자 연구에서 파룬궁수련자의 면역세포 중 항세포 사멸 인자의 활성을 저해하자 염증세포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을 발견했다. 파룬궁수련으로 일으킨 기체조절은 일종 음과 양이 조화로운 평행을 이루는 동시에 면역계통의 "쌍칼날"의 특성이 바로 잡히며 즉 면역력을 높이되 부작용은 없다.

자신과 타인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파룬궁을 요해할 필요가 있다. ◇

연변 박해 소식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판밍란이 실종되다

판밍란(范明兰)은 2020 년 1 월 10 일 좌우 집식구들과 연결이 끊어졌다.

2018 년 6 월 11 일, 판밍란은 연길시 대천성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납치되어 불법으로 집을 수색 당한후 1 년 보석을 받았었다. ◇